

“포항 소멸 앞당기는 현대제철 구조조정 중단”

현대제철 퇴직 노동자들, 포항공장 구조조정 중단·대책 마련 촉구

현대제철 선배 노동자들이 포항 현대제철 구조조정은 지역 경제 붕괴와 소멸을 앞당긴다며 현대차와 포항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현대제철 퇴직 노동자과 금속노조가 7월 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현대제철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현대차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포항시, 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대제철 포항 2공장 셋다운과 1공장 중기부 라인 매각은 지역 경제와 국가 안보를 송두리째 흔든다”며 “현대제철 구조조정은 단순한 경영상 판단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원산업노동조합 시절 8대 위원장이었던 복덕규 전 포항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스무 살 때 공장에 입사해서 30년간 청춘을 바쳐서 일했던 공장”이라며 “산업의 쌀이라 하는 철강이 무너진다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근간이 흔들린다.

노조를 비롯해 포항시, 시의회, 국회의원 등이 힘 합쳐 특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락 전 금속노조 포항지부장은 “87년부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대표자를 지냈던 분들이 이곳에 왔다. 무책임한 경영진들 때문에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데 퇴직자도 지혜를 모으겠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포항시와 시의회에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위기대응 및 고용안정 지역대책위원회’ 즉각 구성 ▲국가전략 산업으로 철강산업 재정립,

정당한 산업전환 지원특별법과 철강산업 지원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대제철에는 “설비투자 계획 즉각 수립하고 국가 기간산업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장경식 1대·3대 위원장, 권오만 2대 위원장, 김상달 4대 위원장, 문석택 5대 위원장, 박재곤 6대·10대 위원장, 최영민 7대·9대·11대 위원장, 복덕규 8대 위원장, 윤성관 통합 2대 지부장, 이성영 통합 4대 지회장, 이전락 전 금속노조 포항지부장, 서인만 전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의장 등 선배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노조파괴 저지른 회사 대표 결국 범죄자 신세

법원, 기경도 조양한울 대표이사 부당노동행위 징역형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이 7월 2일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저지른 기경도 조양한울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통해 “기경도 대표이사는 금속노조와 조합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대구 조양한울 소속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을 시도하자 기경도 대표이사는 주동자를 색출한다며 핵심 노조 간부 2명을 부당징계했다. 기경도 대표이사는 조합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회유와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법원 검찰이 기소한 두 가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 지회 조양한울분회가 노조파괴에 맞서 단행한 정당한 파업을 회사가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조양한울 사측은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발생한 휴업수당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파업기간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52시간이 훌쩍 넘는 연장근로와 특근을 강행한 것도 법원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죄에 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기경도 대표이사의 방약무인한 태도를 꼬집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의 판결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면서도 “조양한울분회 조합원들이 아직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법정구속으로 이어지

〔 노동자 일자리 생명 지키고
온전한 노동3권 모두에게 〕



**나중 말고 지금 당장
금속노조 2025 총파업**



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고 평했다.